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光州日報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한
"햇살론" 업무개시
동양지축은행 226-0180

광주 25/33℃ 목포 25/30℃ 여수 25/30℃
단기 4343년 (음력 7월 15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8760호 1판 2010년 8월 24일 화요일

LH, 지역경제 망치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00억대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도 "돈이 없다"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외면하고, 지역경제 성장의 발판인 산업단지 조성을 미루는가 하면 건설원가 절감을 명목으로 협력업체에 고통을 전가해 지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같은 LH의 경영행태에 대해 일부 경제단체는 "지난 10년간 반서민정책으로 일관했다"며 "LH를 해체하고 업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성장 발판 산단조성 삐걱

LH가 재정난을 이유로 광주·전남 공동산단인 '빛그린 산업단지' 보상과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성토를 미뤄 산단 조성이 잇따라 차질〈광주일보 7월26일자·8월13일자 1면〉을 빚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해당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에서 수차례 LH 본사를 방문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요청했지만 LH는 "경영여건이 호전된 뒤 재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했다.

수익 우선 서민주거안정 외면

낙후지역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기로에 섰다. LH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된 곳은 화정2(2만5184㎡), 지원3(5만590㎡), 동명2(6만3233㎡), 양림동2(12만8997㎡), 유촌(9만6590㎡)지구 등이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지원3과 유촌지구는 이미 사업이 중지됐고, 국토해양부 주관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명2, 양림2지역도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택지 개발도 암초에 부딪혔다. 광주 효천1지구와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 이들 지구는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연내 착공은 물건너갔고, LH의 경영여건에 따라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아파트 입주를 바라며 수년간 기다려왔는데 이제와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재검토한다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원가 절감, 협력업체에 떠넘겨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재검토되면서 LH의 발주물량 축소도 불가피해 지역 중소건설업체도 위기를 맞고 있다.

게다가 LH가 비상 경영을 명목으로 건설원가 10% 절감 방침을 밝혀 지역 건설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들은 LH가 공사 원가를 낮출 경우 수익성이 악화돼 경영난으로 이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LH공사에 참여한 전문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LH의 공사비는 짜기로 소문이 났는데 이를 더 줄인다면 공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H는 현재 광주 수완·첨단·진월·백운지구를 비롯해 전남의 영암 용앙2·순천 가곡·영광 도동·여수 죽림지구 등에 총 1만5369세대의 아파트 공급을 추진 중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亞문화전당 지하공사 순조 오는 2014년 완공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주요시설 중 가장 공사진척이 빠른 아시아예술극장과 문화창조원, 주차장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랜드마크 논란과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 논란 등으로 공사가한이 2차례 연기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현재 전체 공정률은 14%를 보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長壽 광주·전남'

100세 장수지표 전국 최상위권
당근·토란 등 근채류 섭취 효과

광주·전남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100세까지 생존하는 비율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종인(한국보건복지학회장) 원광대 복지보건학부 교수가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에 게재한 '노인의 생존백세장수지표에 미치는 건강요인의 영향력'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통계청의 인구통계와 각종 사회조사자료를 토대로 100세 이상 장수한 966명을 분석한 결과, 전남의 '생존백세장수지표'가 인구 1만명당 5.74명꼴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세번째로 높았다. 광주는 4.62로 4위였다. '생존백세장수지표'가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인구 1만명당 8.75명꼴인 제주도로 조사됐고 충남(6.36)이 뒤를 이었다.

'생존백세장수지표'는 지역별 '65세 이상 노인 중 100세인의 비율'을'65세 이상 노인들의 생존율'로 나눈 수치로, 65세 이상 노인이 됐을 때 100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한다.

광주·전남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중 100세인 비율은 각각 2.87명, 3.62명으로 서울(1.98명), 경기(2.02명)보다 높은 반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생존율은 0.62(광주), 0.63(전남)으로 서울(0.67), 경기(0.64)보다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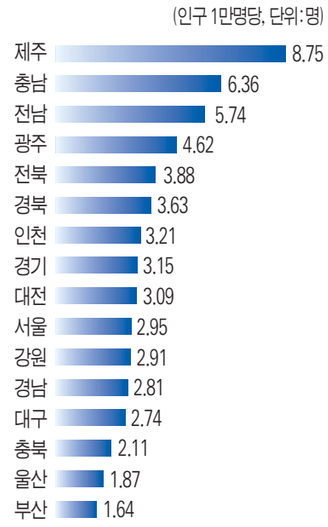
서울 등 수도권보다 자연환경적 건강 요인이 좋아 100세인 비율이 높지만,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인력 및 시설 등의 자원은 열악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생존율은 서울보다 떨어진다는 게 연구팀 분석 결과다.

반면, 자연환경적 건강요인이 의료자원 부족을 상쇄함으로써 전체적인 장수지표는 광주·전남 지역이 높았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2면으로 계속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시·도별 '생존백세장수지표'
(인구 1만명당, 단위:명)



고용 늘리면 세금 깎아준다 세제개편안 발표

정부가 고용 증가인원에 비례해 투자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내년부터 2년간 도입한다. 〈관련기사 5면〉

연말 일몰 예정인 50개 비과세·감면제도 가운데 16개를 폐지하고 3개를 축소하며, 의사, 변호사 등에 대해 소득세 신고 전에 장부 내용을 검증받게 하는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한다.

출산을 장려하고자 다자녀 추가공제를 2자녀의 경우 100만원, 2자녀 초과시 1인당 200만원으로 현재의 배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투자액의 7%를 세액공제하는 그 골격을 그대로 활용해 전년 대비 고용 증가가 있을 때만 투자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2년 기한으로 신설했다. /연합뉴스

대북 쌀 지원 재개 검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됐던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는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지난 22일 열린 당정청 9인 회의에서 ▲북한의 수해로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 ▲우리 쌀 수매 시기가 다가온 만큼 재고관리가 필요한 점 ▲대북 인도지원을 통해 경색 중인 남북관계의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쌀 지원 재개 검토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안 대표가 9인회의에서 정부 측에 쌀 지원 재개 검토를 제안했다"며 "다만 대북 지원 문제는 인도적 차원뿐 아니라 국제관계 등 다각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도 이날 정부가 대북 쌀지원 재개를 검토하고 나선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우리 쌀 농가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세계적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